

삼성전자, 70인치 풀HD LCD TV 출시



삼성전자가 상용 제품으로는 세계 최대의 크기인 70인치 풀HD LCD TV '파브 LED 70(LN70F91BD)'을 6월 14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LED 백라이트를 적용해 화질을 대폭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전자가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적용한 풀HD LCD TV 라인업을 대폭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6월 14일 LED 백라이트를 적용한 70인치 풀HD LCD TV '파브 LED 70'을 출시한데 이어 40·46·52·57인치 등을 추가 개발해 전세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본지 6월13일자 면 참조)

우선 8월께 국내에 52인치 제품을 추가 출시하고, 북미·유럽 등지에 나머지 제품군을 지역별로 크기를 차별화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40인치대 제품은 고객 수용이 가능한 가격대까지 낮춰 LED 백라이트를 적용한 TV제품군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LED 백라이트를 적용하면 명암비와 색재현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LCD 화면을 192개의 블록으로 나눠 영상의 색상에 따라 조도를 조절하는 '카멜레온 LED 백라이트 기술'과 LED를 순차적으로 점멸해 움직이는 영상의 잔상을 제거하는 'LED 스캐닝 기술'을 자체 개발해 이들 제품에 적용했다.

LG전자, 구글 서비스 지원 영상통화폰 첫 선

LG전자가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강력 지원하는 '3세대 영상통화폰'을 유럽 시장에 선보였다.

이 제품은 구글과의 제휴를 통해 구글 서치(Google Search) 구글 메일(Google Mail) 구글 맵(Google Map) 등 구글의 대표 서비스를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구글' 서비스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구글 아이콘을 장착했다.



세계적인 히트 모델로 자리잡은 초콜릿폰을 연상시키는 블랙 색상의 심플한 디자인에 터치 센스 기술을 적용했다.

3D 사운드와 작곡 기능을 지원하는 MP3 플레이어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한 번 클릭으로 MP3 플레이어에 바로 접속 가능한 뮤직 핫키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했다.

2인치 와이드 LCD를 내장하고 있어 동영상 시청과 영상 통화도 편리하다.

이와 함께 200만화소 카메라, FM 라디오, 블루투스 2.0 스테레오, 외장메모리, 멀티태스킹 및 USB 2.0 등의 첨단 기능을 지원한다.

구글 서비스 지원 영상통화폰은 금주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시장에 출시된다.

삼성SDI, 세계에서 가장 얇은 AMOLED 개발

삼성SDI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0.52mm 두께의 2.2인치 AMOLED를 개발했다고 지난 5월 17일 밝혔다.



삼성SDI는 이 제품을 올 3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어서 하반기부터 이를 채택한 5mm 안팎의 초슬림 휴대폰도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이 제품의 두께는 삼성SDI가 올해 초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LCD모듈 0.74mm보다 0.22mm 더 얇다. 특히 현재 양산 가능한 1.7mm LCD모듈 두께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삼성SDI AMOLED사업팀장 유익진 상무는 "이 제품은 3분기 AMOLED라인 양산과 함께 바로 상용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펼쳐진 패널 두께 경쟁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MOLED는 LCD와 달리 자체 발광하기 때문에 백라이트와 컬러필터 등이 필요없어 두께를 크기 줄일 수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최고 수준의 식각(Etching)기술을 이용해 패널 후면부(bezel)와 보호막(polarizer)의 두께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레인콤, 프리미엄급 MP4P 'B20' 출시

레인콤은 MP3와 동영상 콘텐츠는 물론, 지상파 DMB·DAB 송신 기능 등을 담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아이리버 B20·사

진'을 오는 4월 25일 국내에 출시한다.

이 제품은 유럽 디지털 라디오 방식 (EUREKA-147) 표준에 의거, 지상파 DAB와 DMB 기능을 내장해 내달부터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8개국에 수출된다.



B20은 2.4인치 화면에 26만 컬러의 QVGA TFT LCD를 장착했으며 초당 30 프레임의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 DAB·DMB 수신 안테나는 내장형으로 FM 라디오는 물론, DAB·DMB 방송도 실시간 또는 예약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도시바코리아, 고풍택 노트북 출시

도시바코리아는 반짝이는 보석을 연상케 하는 고급스러운 케이스의 노트북PC '새틀라이트 A200 오닉스블루·사진'를 지난 4월 23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보석처럼 빛나는 고풍택 오닉스블루 컬러의 커버와 함께 윈도비스타 홈프리미엄, 동급 최대용량의 하드 디스크와 고속 메모리를 탑재해 노트북 구입시 중요한 선택기준인 성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켰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동급사양 대비 최대 밝기를 자랑하는 200니트의 15.4인치 와이드 스크린 '트루브라이트' 기술과 '클리어 슈퍼뷰 (CSV)' 액정을 적용, 선명한 화면을 지원

한다. 또 130만화소의 고화질 웹캠을 추가해 멀티미디어 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지원한다.

ST마이크로, 대형 LCD용 드라이버 칩 출시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급성장하는 LCD TV 시장을 겨냥, 대형 LCD용 드라이버 칩(LDI) 'STD8420C와 STD8420A)를 출시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ST마이크로가 처음으로 개발한 LDI로, ST마이크로는 이 제품을 시작으로 LDI 제품군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칩은 현재 대만 LCD업체인 CPT에 샘플 공급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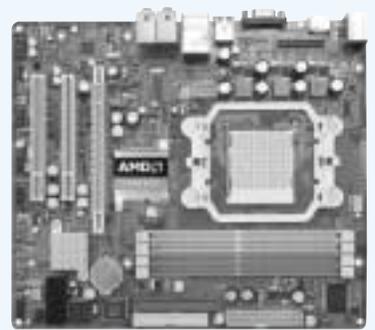


ST마이크로측은 "한국·중국·대만·일본 등에서 대형 LCD TV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아태시장을 겨냥해 대형LCD용 LDI사업을 본격화했다"며 "이 칩의 개발을 위해 내셔널세미컨덕터와 기술제휴를 했다"고 설명했다.

유니텍, AMD 칩세트 주기판 출시

유니텍전자는 HDMI 단자와 AMD의 690G 칩세트를 탑재한 'AMD 690G HDMI 히드라' PC용 주기판을 3월 18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칩세트에 그래픽 기능이 내장



돼 있어 3D 게임 뿐만 아니라 고화질 영상 입출력이 가능한 HDMI 단자를 통해 평면 TV와 와이드 LCD 모니터와 연결이 가능하다. 또 DVI 단자는 물론 D-SUB 규격의 영상 출력이 가능해 듀얼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8채널 HD 오디오를 지원하며 윈도비스타와 호환된다.

소니코리아, 블루레이 탑재 노트북PC 3종 출시

소니 코리아는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한 15.4인치 노트북 PC '바이오 FZ 시리즈·사진' 3종을 6월 24일 출시했다.

바이오 최초로 산타로사 플랫폼을 탑재한 FZ 시리즈는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HDMI 단자 및 LCD TV와 유사한 수준의 색재현력(NTSC기준 90%)을 갖춰 풀 HD 영상을 선명하게 지원한다. 이전 FE 시리즈에 비해 향상된 듀얼백라이트를 활용하여 녹색계열의 재현력과 빛의 집중화가 향상되어 최고의 화질을 구현한다. 또한 FZ 시리즈는 유선형 디자인으로 크기가 줄어 디자인 면에서도 기능이 향상됐다.

